

#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박일태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l Tae Park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중 2017년 자료인 고등학교 1학년 1,2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 20.0과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두 변수 사이에 조절효과는 없었다.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향상을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다문화, 청소년, 자아존중감, 양육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Among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data of 1,260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in 2017 year were analyz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0.0 programs. As a result,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was noted. Self-esteem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Bu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order to improve th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hat developing a strategy that can promot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enhance their self-esteem.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propose further research considering the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Key Words : Multiculture, Adolescent, Self-esteem, Parenting attitud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Corresponding Author : Il Tae Park(pit97@naver.com)

Received December 28, 2020  
Accepted February 20, 2021

Revised January 14,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1],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달성해야 하는 도전과제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로 [3],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아인식의 형성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제이다[4].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에 자신이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5]. 다문화 청소년은 양쪽 부모가 가진 두 가지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6], 사회적 편견을 경험한다[7]. 사회적 편견과 타 민족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평가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인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7], 다문화 청소년은 두 가지 다른 문화로 인해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고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등 자아정체성 형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8].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9].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중문화에 잘 적응하며 양쪽 문화에 모두 참여하고,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폭 넓게 교류함으로써 비적응적 요소들을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10]. 자아존중감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수준이 낮고[11], 삶의 만족도가 높다[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13]. 부모의 온정적, 수용적 양육태도는 긍정적 자아인식 형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며[14], 부모의 방임과 독재적인 양육태도는 불완전한 자아인식 발달과 우울, 음주와 같은 정서적 문제 및 문제적 행동과 관련이 깊다[15, 16].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Nam & Baik[1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18, 19]. 부모가 가지는 편견과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는 청소년기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20]. 부모의 인종, 문화에 대한 차별적 편견은 자녀의 편견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18], 부모의 온정적,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다문화 수용성

을 높이고,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19].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양쪽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문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반면, 이중문화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 갈등, 자아정체성의 혼란 등을 경험한다[10]. Lee 등[21]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 중 한국문화와 외국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청소년 그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중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많은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에 정적영향을 미치며[19, 22],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23], 다문화 청소년의 주요 발달 과제인 자아존중감 형성이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험적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다[11, 12, 24].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학교적응, 삶의 만족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12, 24],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11].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심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적 단계로 부모와 갈등을 겪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이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5].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자녀 발달 및 문화 적응의 문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26].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중문화수용태도 영향을 미치며[17-19],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우리 사회 구성원인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23].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중문화수용 태도에 영향하고, 어떤 조건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확인한다.
-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데이터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 2.2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중 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를 층화임의추출법과 확률비례추출법을 사용하여 선정한 다음, 선정된 학교의 다문화 청소년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의미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 및 중도 이주 가정 청소년, 외국인의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본 패널 대상자의 대다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이다[27]. 1차 조사는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동일한 대상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모두 조사된 가장 최근 시점인 2017년 자료(7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7년 자료의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7차 설문문에 참여한 1,260명의 표본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 2.3 연구 도구

#### 1)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Huh[28]와 Lee 등[29]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감독과 방임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감독은 Huh[28]의 양육태도 도구 중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방임은 Huh[28]의 도구를 수정한 Lee 등[29]의 도구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그렇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10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44이었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5]의 자아존중감 척도 9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그렇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9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69이었다.

#### 3)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는 Nho & Hong[30]의 한국 및 외국문화태도 평가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국과 외국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태도로, 음악, 영화, 의복, 문화활동 참여, 미래 거주, 진학국가 및 취학 희망정도 등을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그렇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에 관심이 많음을 의미한다. 10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52이었다.

###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 ANOVA 및 Scheffe 사후분석,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통계량,

GFI(Goodness of Fit Index)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51.19%(645명)였고, 연령은 평균 15.97세였다. 거주 지역은 경인 25.87%(326명), 경상도 22.78%(287명), 전라 및 제주 21.19%(267명) 순이었으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는 중소도시가 44.44%(5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각각 고졸이 47.54%(598명), 52.16%(6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중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3.17%(40

명),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96.27%(1213명)로 대부분이었다. 국적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1.90%(90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인 부모님 나라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6.35%(332명) 이었다. 외국 출신 부모님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21.90%(276명)로, 과반수 이상(78.10%)이 외국 출신 부모님 나라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차이는 여성인 경우( $t=3.57, p<.001$ ),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 $F=7.24, p<.001$ )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국적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인 부모님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인식한 경우( $F=32.68, p<.001$ )가 ‘한국사람’으로 인식한 경우보다,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t=6.50, p<.001$ )가 없는 경우 보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N=1260)

Categories	n (%)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M±SD	t or F	Scheffe*	p	
Gender	Female Male	645 (51.19) 615 (48.81)	2.95±0.41 2.87±0.38	3.57		<.001*
Age (year)		15.97±0.35	—	—	—	—
Residential district	Seoul Gyeongin Chungcheong and Gangwon Gyeongsang-do Jeolla and Jeju	129 (10.24) 326 (25.87) 251 (19.92) 287 (22.78) 267 (21.19)	2.90±0.38 2.91±0.36 2.93±0.42 2.90±0.42 2.89±0.39	0.30		.878
Regional size	Metropolis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Rural areas	319 (25.32) 560 (44.44) 381 (30.24)	2.93±0.38 2.90±0.40 2.91±0.40	0.49		.611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sup>a</sup> High school <sup>b</sup> College <sup>c</sup> University <sup>d</sup> Graduate school <sup>e</sup>	136 (10.81) 598 (47.54) 323 (25.68) 194 (15.42) 7 (0.56)	2.75±0.46 2.91±0.37 2.94±0.38 2.94±0.40 3.29±0.32	7.24	a<b,c ,d,e	<.001*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sup>a</sup> High school <sup>b</sup> College <sup>c</sup> University <sup>d</sup> Graduate school <sup>e</sup>	372 (30.85) 629 (52.16) 77 (6.38) 118 (9.78) 10 (0.83)	2.91±0.43 2.89±0.38 2.89±0.31 3.02±0.38 3.03±0.35	3.05	b<d	.023
Foreign status of parents	Father Mother Both None	40 (3.17) 1213 (96.27) 5 (0.40) 2 (0.16)	3.01±0.38 2.90±0.40 2.80±0.25 3.45±0.78	2.27		.078
Recognition of nationality	Korean <sup>a</sup> Foreign parents' countryman <sup>b</sup> Both parents' countryman <sup>c</sup> Do not know well <sup>d</sup>	906 (71.90) 11 (0.87) 332 (26.35) 11 (0.87)	2.84±0.37 3.06±0.32 3.08±0.41 2.86±0.31	32.68	a<c	<.001*
Experience of visiting the country of parents	Yes No	276 (21.90) 984 (78.10)	3.04±0.40 2.87±0.39	6.50		<.001*

\* Scheffe comparison,  $p<.050$ .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230)

	M±SD	Skew-ness	Kurtosis	r (p)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Parenting attitude	3.24±0.46	-.11	-.43	1		
Self-esteem	3.81±0.64	-.17	-.17	0.49 (<.001)	1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2.91±0.40	.21	-.79	0.37 (<.001)	0.35 (<.001)	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N=126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SE	CR	p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β	t (p)	β	t (p)	β	t (p)	
Parenting attitude	- Self-esteem	.49	0.03	19.87	<.001	.49	19.87 (<.001)	-	-	.49	19.87 (<.001)	.24
Parenting attitude	-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27	0.03	9.11	<.001	.27	9.11 (<.001)	.11	5.50 (<.001)	.37	12.33 (<.001)	.18
Self-esteem	-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22	0.02	7.42	<.001	.22	7.42 (<.001)	-	-	.22	7.42 (<.001)	

β=Standardized estimates;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 3.2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이중문화수용태도 정도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화수용태도 정도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부모 양육태도는 총 4점 만점에 평균 3.24점(SD=0.46), 자아존중감은 총 5점 만점에 평균 3.81점(SD=0.64),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총 4점 만점에 2.91점(SD=0.40)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 3.3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이중문화수용태도 간의 상관관계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화수용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Table 2와 같다.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r=.49, p<.001$ ), 이중문화수용태도( $r=.37, p<.001$ )는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수용태도도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r=.35, p<.001$ ).

### 3.4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chi^2$  값이 '0', 자유도가 '0', GFI=1인 포화모형으로 나타났다. 포화모형은 모든

적합도 지수에 대해 최고의 값을 가지므로, 본 연구의 모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31].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경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Fig. 1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부모 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β 값이 .49 ( $p<.001$ )로 정적(positive)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독립변수인 부모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β 값이 .27 ( $p<.001$ )으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이 .22 ( $p<.001$ )으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즉, 매개변수로 설정된 자아존중감은 독립변수인 부모 양육태도와 종속변수인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매개변수임이 규명되었다.

이어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49,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부모 양육태도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27,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간접효과( $\beta=.11, p<.00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22,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한 결과,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간접효과는 신뢰구간 95%에서 하한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N=126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eta$	SE	C.R.	$p$	SMC
Parenting attitude	→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0.27	0.03	9.12	<.001	
Self-esteem		0.22	0.02	7.39	<.001	.18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0.01	0.03	0.44	0.663	

$\beta$ =Standardized estimates;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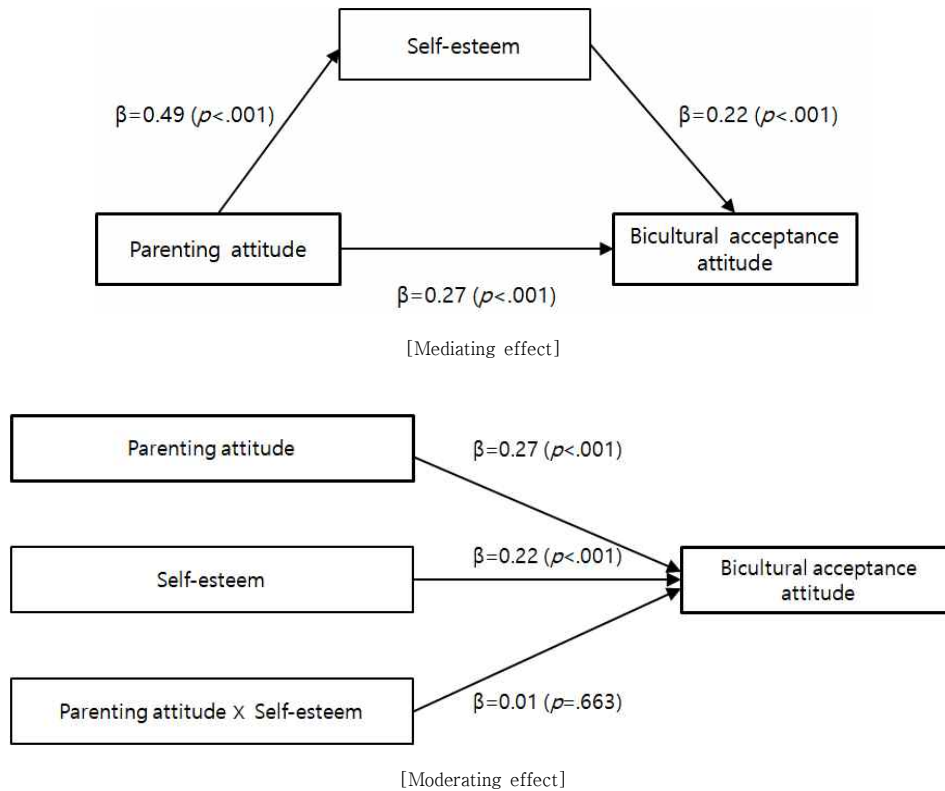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0.064-0.124)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 3.5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4와 Fig. 1과 같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인과관계 경로분석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수들을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독립변수인 부모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영향에서  $\beta$  값이 .27 ( $p<.001$ )로 정적(positive) 유의성을 나타냈다. 둘째,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beta$  값이 .22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01, p=.663$ ).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 4. 논의

최근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의 수도 급증하고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가 지닌 두 가지 문화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4점이었다.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Mok 등[32]의 연구에서도 평균 3.23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비다문화 가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33]과 Mun & Choi[34]의 연구에서는 각각 평균 3.16점, 평균 3.1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동일한 측정 도구가 아니므로 해석에 제한이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비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여볼 때,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1점으로 나타났다. 9~24세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35]의 연구에서도 평균 3.83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Yang 등[2]의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소득 1분위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비 다문화 청소년을 비교하였는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비 다문화 청소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그룹의 소득수준이 정확하게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다문화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계층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즉, 다문화 집단에 속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배경요인에 따라 발달상태가 다르며, 다문화 청소년이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발달상태가 뒤쳐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의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4점 만점에 2.91점으로 세 변인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Nho & Hong[30]의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몽골 청소년들은 과반 이상이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하였고 몽골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취업과 진로는 한국에서 원하는 등 양

쪽 문화에 대한 양가감정과 혼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1]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 중 한국 문화와 외국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청소년 그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가 이중문화를 수용하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화수용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 정도가 높았다.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19, 22]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자녀가 타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 정도가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11],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어,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양육태도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조절효과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 매개하여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Han & Kahng [11]의 연구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Kim & Yoon [12]의 결과와 유사하다. 부모의 온정적, 수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긍정적 자아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14],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비적응적 요소들을 스스로 잘 조절하며 다른 문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0]. 본 연구결과는 환경적 요소로써 부모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

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 태도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들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스트레스와 우울 및 사회적 위축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Jeon & Chun[3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자아정체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Jaureguizar 등[37]과 Wei 등[38]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Wei 등[38]은 미국의 아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차별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인식된 차별과 우울증 증상 사이의 연관성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들에게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들 중 반응적 대처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 요인들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37, 38]. Han과 Kahng[11]은 자아존중감이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심리적 기제로써 작용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같은 긍정적 요인들의 관계에서는 위험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하는 요인들이 통제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 이외에 친구지지[39], 대인 관계능력, 이타성[19]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조절할 만큼의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하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반복 연구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 양육태도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 양육태도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Verkuyten[40]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다문화주의이면, 타 문화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기 때문에 소수 민족이 그들 자신을 사회구성원으로 느끼며,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의 자아존중감도 높다고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개인적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큰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다문화 청소년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청소년이 인식한 것으로 측정하여, 부모나 제 3자에 의해 측정된 연구결과와 다를 수 있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상자에게 보다 객관적인 방식의 도구를 활용하여 반복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와의 사이에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향상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증진을 위한 양육교육과 학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0 Adolescent Statistics* [Internet] [cited 2020 December 18]. Available from :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962](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962)
- [2] K. M. Yang, S. K. Kim & J. H. Park. (2011). Longitudinal study for track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I,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344.
- [3] R. J. DiClemente, W. B. Hansen & L. E. Ponton. (1996). Adolescents at risk. In *Handbook of adolescent health risk behavior*. Boston : Springer, 1-4.
- [4] L. S. Neinstein, D. K. Katzman, T. Callahan, C. M. Gordon, A. Joffe & V. Rickert. (2016). *Neinstein's Adolescent and Young Adult Health Care*. 6th Revised edition, Pennsylvania,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
- [5]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6] M. A. Yampolsky & C. E. Amiot. (2016). Discrimination and multicultural identity configurations: The mediating role of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5, 86-96. <https://doi.org/10.1016/j.ijintrel.2016.09.002>
- [7] M. Kenny & A. McEachern. (2009). Children's Self-Concept: A Multicultural Comparison.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2(3), 207-212.
- [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sult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Adolescent and Parents, Seoul, 1-141.
- [9] R. I. Toro & T. Nieri. (2018). Parent-child acculturation and cultural values difference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self-esteem and ag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6, 1-11.
- [10] A. M. D. Nguyen & V. Benet-Martínez. (2013). Biculturalism and adjust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1), 122-159. <https://doi.org/10.1177/0022022111435097>
- [11] K. H. Han & S. K. Kahng. (2019). The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adolescents-Testing a Theoretical Model of the Stress Proce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7(1), 231-257.
- [12] P. H. Kim & H. M. Yoon. (2020).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in Mediation on Self-esteem: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1), 25-53.
- [13] M. J. Choi.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children's self-esteem, and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2), 105-121. <https://doi.org/10.5723/kjcs.2011.32.2.105>.
- [14] Y. A. Youn, (2014). Parental child rearing practices perceived by parent themselves, and by adolescents: Self efficacy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 123-148.
- [15] M. Pellerone, G. Tolini & C. Polopoli. (2016). Parenting, identity development, internalizing symptoms, and alcohol use: a cross-sectional study in a group of Italian adolescents. *Neuropsychiatric Disease and Treatment*, 12, 1769-1778.
- [16] J. W. Luk, J. A. Patock-Peckham, M. Medina, N. Terrell, D. Belton & K. M. King. (2016). Bully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a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athways: A Retrospective Study Linking Parenting Styles and Self-Esteem to Depression, Alcohol Use, and Alcohol-Related Problems. *Substance use & misuse*, 51(1), 113-25.
- [17] S. A. Nam & J. S. Baik. (2011).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of child and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9(1), 3-12.
- [18] S. Sinclair, E. Dunn & B. S. Lowery.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acial attitudes and children's implicit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283-289.
- [19] S. H. Lee & J. H. Kwon. (2018).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ltru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dolesc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4), 969-993.
- [20] C. Edmonds & M. Killen. (2009). Do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racial attitudes relate to their intergroup contact and cross-race relationship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2(1), 5-21. <https://doi.org/10.1177/1368430208098773>.
- [21] Y. J. Lee, S. Y. LEE & R. K. Park. (2017). A Study about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Psychological Adaption, School Adap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5), 347-372.
- [22] A. S. Wo & B. S. Park. (2019).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Multicultural expropriation of University student According to Community Spiri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8), 189-197.
- [23] J. G. Lee & H. J. Lee. (2019). The Influence of Bilingual and Bicultural Factors on Self-esteem of Multicultural

- Youth,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30(4), 81-100.
- [24] J. H. Kim. (2019).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ed by depression and self-esteem.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7(3), 115-124.
- [25] J. H. Kwon & E. H. Lee. (2006).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17(1), 325-351.
- [26] N. Y. Choi, H. K. Woo, H. S. Jung, H. J. Park, S. H. Yi. (2006).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2), 255-268.
- [27]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9)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1-52.
- [28] M. Y. Huh. (2004).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 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70-189.
- [29] Lee, K. S., Baek, H. J., Lee, J. W., & Kim, J. Y. (2011).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I report.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30] C. R. Nho & J. J. Hong. (2006).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children to Korean society : About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 gi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 127-159.
- [31] H. C. Kang. (2013). Discussions on the suitable interpretation of model fit in dices and the strategies to fit model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653-668.
- [32] S. R. Mok, B. L. Suh, J. K. Jeong & M. J. Kang. (2019). The Effect of Maternal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Family Environment Research, 57(3), 341-352.
- [33] S. A. Kim. (2013).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Peer Attachment, Multicultural Acceptance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Early Adolescence. Forum For Youth Culture, 35, 59-89.
- [34] D. S. Mun & E. S. Choi. (2015). The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on Smart 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213-236.
- [35] J. C. Lee. (2019). The Effect of Par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School Adaptability o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2), 877-897.
- [36] H. S. Jeon & J. S. Chun. (2020).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Internalizing Problem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Peer Relations, and Teacher Suppor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8), 223-255.
- [37] J. Jaureguizar, M. Garaigordobil & E. Bernaras. (2018). Self-concept, social skills, and resilience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childhood depression. School mental health, 10(4), 488-499.
- [38] M. Wei, T. Y. Ku, D. W. Russell, B. Mallinckrodt & K. Y. H. Liao.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51.
- [39] R. H. Lee & H. L. Chang.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bicultural attitude and learning attitud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friend support through ego resilience.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7(3), 103-114.
- [40] M. Verkuyten. (2009). Self-esteem and multiculturalism: An examination among ethnic minority and majority group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3), 419-427.

## 박 일 태(Park, Il Tae)

[장학원]



- 2001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6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20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아동의 안전, 건강발달, 간호
- E-Mail : pit97@naver.com